

美中정상, 100분 ‘부산 담판’... 무역전쟁 휴전

트럼프-시진핑, 6년만에 정상회담
美, ‘펜타닐 관세’ 20%→10%로 인하
中,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맞교환’
트럼프, 반도체 규제완화엔 선 그어
가장 민감한 ‘대만 문제’는 논의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30일 정상회담을 열고 상대를 겨냥한 강경한 무역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단속 미흡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 중인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하기로 했고, 중국은 최근 발표한 강화된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확전 일로로 치닫던 중, 두 나라가 일단 단계를 겨는 치명적인 무기는 거둬들이며 ‘휴전’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은 가장 민감한 안보 의제로 여겨져 온 ‘대만 문제’도 정상회담 중 논의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19년 일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정상회담 뒤 6년 4개월여 만에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이 직접 담판을 통해 극한 대립은 피하기로 합의하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으로 여겨져 온 미중 무역전쟁은 일단 한숨 고르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다만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준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도 많아 미중 무역전쟁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수 있던 관측도 제기된다.

미중 정상은 이날 부산 김해국제공항 공군기지 내 접견장인 나래마루에서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1시간 40여 분간 확대 정상회담을 이어갔다. 회담 뒤 곧장 귀국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취재진에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펜타닐 때문에 20% 관세를 부과했었는데, 그 관세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또 “희토류는 전부 해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항 공군기지의 나래마루 접견장에서 정상회담을 갖기 전 악수하고 있다. 2019년 6월 이후 6년 만에 만난 두 정상은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1시간 40여 분간 회담을 갖고 상대국을 겨냥한 강경 무역 조치를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은 마약 ‘펜타닐’ 범람을 이유로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췄고, 중국 또한 희토류 수출 통제 철회에 합의했다. 부산=AP 뉴시스

됐다”면서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중국이 희토류 공급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막대한 양의 미국산 대두(大豆)와 다른 농산물도 즉시 구매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상대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과 관련해 부과한 조치도 서로 유예하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반도체의 중국 수출에 대해선 큰 폭의 규제 완화는 없을 것임을 시

했다. 그는 “엔비디아가 중국과 협의할 것이고, ‘블랙웰’(엔비다가 개발 첨단 반도체)은 논의에 포함 안 됐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의제는) 등장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양측이 원활한 무역 협상을 위해 대만 문제는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계획도 구체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4월 중국을 방문하기로 했다”면서 “그 이후엔 시 주석이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전 모두발언에선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많은 것에 합의했고, 이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합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주석은 “미중 관계는 전반적으로 광장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국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는 정상적인 것”이라고 했다.

워싱턴=신진우 niceshin@donga.com /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 이기욱 기자
▶A2·3면에 관련기사

〈핵추진 잠수함〉
李 ‘핵잠 요청’ 하루만에
트럼프 “韓의 건조 승인”

“美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것” 밝혀
中 “韓美, 핵 비확산 의무 이행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핵잠 연료의 공급을 결단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에 한국의 핵잠 확보 지지를 공식 천명한 것. 미국이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한국의 핵잠 도입에 적극 찬성하면서 한국이 세계에서 7번째로 핵잠 보유국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트루스스실에 “한미 군사 동맹은 어느 때보다도 강력하다”며 “이에 기반해 나는 한국이 보유한 구식이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핵잠을 확보하려면 원자력 협정 개정과 미국의 기술 지원 및 연료 공급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승인’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며 “미국의 조선업은 곧 대대적 부활(Big Comeback)을 맞을 것”이라고도 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공유한 것은 최우방국인 영국과 1950년대 협력한 게 유일하다”며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도 30일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강력히 지지했다”며 “앞으로 자주 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한미 핵잠 협력 가능성에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관련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한미 양측이 핵 비확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안규영 기자
▶A4면에 관련기사

러트닉 “반도체 관세, 합의 포함 안돼” 韓과 엇갈린 주장

韓정부 “대만 수준 적용” 발표와 달라
대통령실 “합의 바탕... 문서 작업 중”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30일 한미 관세 합의에 대해 “반도체 관세는 이번 딜(deal)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날 관세 합의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엇갈린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는 데 동의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이 시장을 100%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고 적었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한미 관세 협상 세부사항 합의로 미국이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반도체 관세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

은 대우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세부 내용을 다른 팩트 시트(Fact Sheet·설명자료)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고 했다. 시장 개방에 대해서도 “이번 합의로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X에 “아주 멋진 아름다운 협상이었다”며 “미래지향적 한미동맹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황금 같은 시간이었다”고 적었다. 경주=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A8면에 관련기사

구독료 자동이체 신청하고, 새해 달력 받으세요!

구독료 납부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이벤트 기간 중 자동이체를 신규 신청하신 선착순 3000명에게 동아일보가 한정판으로 제작한 ‘2026년 대형 벽걸이 달력’을 드립니다. 보기 편한 큰 글씨와 다양한 생활정보로 구성된 실용적인 동아일보 달력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세요!

- 기간: 2025년 12월 31일(수)까지(소진 시 조기 종료)
- 대상: 신문 구독료 자동이체 신규 신청 독자

자동이체 신청 및 안내 | 전화: 1577-2920
인터넷: 동아일보 독자라운지(readers.donga.com)



알립니다

SAMSUNG

세계의 리더들이 대한민국에 모여 지속가능한 내일을 그립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삼성이 지원합니다

APEC 2025
KOREA

APEC 2025 KOREA

